

Think the Green []

KC그린홀딩스
제 135호 KC뉴스레터

제 135호 KC뉴스레터

2025년 1분기에 있었던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의 소식을 공유합니다.

-
- 발행일 : 2025년 4월
 - 발행주관 :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 문의/발간 : yuseung@green-kc.com

목차

커뮤니케이션

- KC그린홀딩스, 2025년 시무식 개최
- KC그린홀딩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KC코트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제품·기술 인증

- KC코트렐, '오존프리 집진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대외 수상

- KC글라스, '상공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기타

- [HR] 비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안전] 생애주기부터 여행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 [환경] 단기간에 숲을 만든 한국의 산림 기적

KC그린홀딩스, 2025년 시무식 개최

KC Green Holdings



커뮤니케이션

KC그린홀딩스, 2025년 시무식

KC그린홀딩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KC코트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기타

KC그린홀딩스는 1월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은 김종규 사장의 신년사를 중심으로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종규 사장은 지난해를 “창사 이래 가장 큰 시련의 해”로 돌아보며, 여러 계열사의 부실로 인한 자금 투입과 우량 계열사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과정을 언급했다. “회사의 큰 시련이었지만, 지난 12월 채권단의 워크아웃 승인은 회복 가능성을 증명해낸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만든 결과”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25년에는 KC코트렐의 경영 정상화와 KC Network의 향후 방향 설정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대외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청사의 해는 성장과 희망, 지혜와 변화를 상징한다”며, “변화의 중심에서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끝)

< 3 >



KC그린홀딩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KC Green Holdings



커뮤니케이션

KC그린홀딩스, 2025년 시무식

KC그린홀딩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KC코트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기타

KC그린홀딩스는 3월 28일 상암동 본사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 보고사항과 함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총 4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날 의장을 맡은 이태영 대표이사는 자회사인 KC코트렐의 워크아웃 신청과 당사의 지급보증 연계로 인해 KC그린홀딩스 또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그는 “채권단의 실사를 통해 회사의 재건 가능성을 확인받고, 상환 일정 조정과 신규 자금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자구계획 이행과 수익성 중심 경영, 현금 확보를 통한 전략적 대응으로 조기 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도 워크아웃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체질 개선과 핵심 사업 집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것”이라며, “위축되지 않고 도전 정신을 되살리는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뢰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각오를 전했다.

한편,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감사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52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공 체계 및 내부 회계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끝)

< 4 >



KC코트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은 3월 28일 상암동 본사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 보고사항과 함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금 감소 ▲사외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5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박기서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감사 결과 ‘의견거절’이라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주주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며, “즉시 전담 TFT를 구성해 필요한 자료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의 워크아웃 신청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며 “고강도 구조조정, 일부 자회사 매각, 해외 프로젝트 정리 등 유동성 개선 조치를 단행했고, 채권단의 실사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 1월 최종 지원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축적된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장기적 손실 정리와 업무 관행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수익성 개선 ▲중장기 사업 전략 준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경영 실천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주 원가율 관리와 리스크 선제 차단을 통한 사업 수익성 개선”, “저오존 전기집진기, 무필터 공기정화 시스템 등 기술 상용화”, “CCS 기술 기반의 탄소 저감 사업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서 대표는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해였지만, 주주와 고객, 채권단, 협력사, 임직원의 신뢰와 헌신 덕분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2025년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커뮤니케이션

KC그린홀딩스, 2025년 시무식

KC그린홀딩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KC코트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기타

< 5 >



KC코트렐, '오존프리 집진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KC코트렐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데이터 기반 자동제어와 건식세정 시스템이 융합된 오존프리 집진기'가 2025년도 제1차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KC코트렐의 기술력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기술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오존프리 전기 집진기로, 데이터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과 건식세정 시스템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전도성 섬유와 유전체 필름을 활용해 전국 지하철 역사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조기에 적용되어, 기존 공조기에 적용된 PRE FILTER 및 MEDIUM FILTER(HEPA FILTER) 대체하며,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에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건식세정 시스템이 접목되어 기존의 수세정의 폐수 및 겨울철 동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범사용, 구매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미세먼지 저감 관련 공공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혁신제품 지정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19일까지다. (끝)

커뮤니케이션

제품·기술 인증

KC코트렐,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대외 수상

기타

< 6 >



KC글라스, '상공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KC글라스는 지난 3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관리자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상공의 날 기념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며, 국가 경제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관리자, 근로자, 외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포상을 진행하는 대표 산업계 행사다. 올해는 총 231명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KC글라스는 환경·보건 분야 담당 관리자인 SEQ팀 조성구 부장을 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해당 구성원은 축적된 실무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 임직원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 ESG 실천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커뮤니케이션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KC글라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기타

< 7 >



수상자는 “회사의 환경·안전 중심 경영과 실무 지원 덕분에 이번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

[HR] 비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등기임원과 달리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등기임원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반면, 내부 규정에 의해 임명된 비등기임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보기도 하나, 업무 내용이나 처우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임원의 근로자성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그 판단 과정에서는 해당 임원이 사업장 내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회사의 규모 및 사업의 특성으로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업무를 분장해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춘 업무 담당 임원이 필요하다. 이에 판례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적 지표를 통해 본 회사의 규모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둘째, 비등기임원의 선임 경위로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영입한 경우, 회사의 경영 목적이나 필요에 따른 선임 배경, 해당 임원의 경력 및 전문성,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역할 등이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고려되기도 한다.

셋째, 직원과 구분된 운영제도의 운영으로 판례는 대체로 회사 내에서 임원을 직원과 다르게 분류하고 취급하는지를 살펴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i)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기를 정한 '임원계약서'의 체결, (ii)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 배제, (iii)임원의 선임, 해임, 보수 및 처우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 운영, (iv)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여부, (v)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휴가 사용 등과 관련해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태 관리를 받는지 여부 등이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뒷장 계속)

커뮤니케이션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기타

비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생애주기부터 여행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단기간에 숲을 만든 한국의 산림 기적

< 8 >



[HR] 비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넷째, 보수 및 처우의 현저한 우대로 임원의 경우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고도의 성과가 기대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연봉과 처우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판례는 비등기임원의 보수가 일반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지 여부와, 일반 직원들과 달리 차량 및 기사 지원, 개인 사무실 및 비서 지원, 골프 회원권, 건강검진비, 업무 추진비, 높은 법인카드 한도 부여 등 복리후생이 제공되는지 여부도 판단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다섯째,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 및 독자적인 업무 수행으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즉,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한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했는지 여부' 및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또한 임원이 비위행위 발생 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원의 지위와 형태는 각 회사마다 다양하므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단순히 직책이나 명칭만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기에서 언급한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관계사에서는 KC그린홀딩스가 공유한 임원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임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정)을 마련하여,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

커뮤니케이션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기타

[비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생애주기부터 여행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단기간에 숲을 만든 한국의 산림 기적

< 9 >



[안전] 생애주기부터 여행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백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이 진행된다. 백신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시기에는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폐렴구균, A형간염 등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제공된다. 청소년은 자궁경부암 백신과 파상풍·디프테리아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예방접종은 계속 필요하다. 특히 Td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은 10년마다 한 번씩 재접종이 권장되며,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좋다. 홍역이나 풍진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경우 MMR 추가 접종이 필요하고, A형·B형간염 항체가 없는 성인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부터 권장된다. 노년기에는 폐렴, 독감, 대상포진 등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백신의 효과가 더욱 크다. 65세 이상은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생애주기뿐 아니라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해외여행 시에는 여행지마다 유행하는 감염병에 따라 접종이 권장되며,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홍역, 뎅기열, A형간염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출국 전 방문 국가의 접종 권장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2~4주 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계절별 감염병도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장티푸스, A형간염, 수인성 전염병이, 겨울철에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과 함께 손씻기, 마스크 착용, 음식물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도 중요하다.

정부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개인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청소년, 노년층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세계 예방접종 주관을 맞아, 내 건강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이력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

커뮤니케이션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기타

비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생애주기부터 여행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단기간에 숲을 만든 한국의 산림 기적

< 10 >



[환경] 단기간에 숲을 만든 한국의 산림 기적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현재 국토의 63%를 차지한다. 그러나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산림이 파괴되고 땔감 채취로 국토가 황폐해져 전국 대부분이 민둥산이었다. 당시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일상처럼 일어나기도 했다.

1973년 정부는 제1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전국 단위의 본격적인 조림 정책을 추진했다. 앞서 1960년대부터 식목일 지정 등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조림과 수자원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이 당시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제2차 세계대전 등의 여파로 산림이 황폐해졌다. 국제기구로부터 묘목을 지원받아 조림에 나섰음에도 나무들의 활착률은 10~20%에 그쳤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활착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에서만 시행된 독특한 제도인 ‘검목제도’ 덕분이었다. 심은 나무가 실제로 살아남았는지를

엄격히 확인하는 이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같은 고장의 공무원이 검목을 하지 못하도록 타지역 공무원이 담당하게 했고, 활착률이 높은 지역의 공무원에게는 특진이나 성과급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했다.

또한 산림 회복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던 화전민 문제도 독창적으로 해결했다. 단순한 강제 이주 대신 화전민 정착촌에 주택을 제공하고 근처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여성에게는 묘목장 근무를 남성에게는 양봉이나 환경미화 등 생계가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나무를 태우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무를 가꾸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았는데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밝혔으며, 환경 석학 레스터 브라운도 저서 『Plan B 2.0』에서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숲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폭우와 집중호우가 찾아진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숲의 수분 저장 능력은 약 180억 톤으로, 이는 국내 49개 댐의 총 저장 용량(약 140억 톤)을 넘는다. 숲이 거대한 천연댐이자 재난을 막아주는 방패인 셈이다. 한국의 조림화 성공 사례는 정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함께 작동했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 복구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끝)

커뮤니케이션

제품·기술 인증

대외 수상

기타

비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생애주기부터 여행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단기간에 숲을 만든 한국의 산림 기적

< 11 >



